

[기획] >> 4면
장기근속교원 포상 논란

[기획] >> 5면
잉글리시 존

[사회문화] >> 8면
조국 관련 논란

[학술] >> 9면
한일관계

A교수 장기근속 포상, 끝나지 않은 논란

지난달 1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제지역대학원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사안에 대한 비대위와 학교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김민준 기자 99kmj2086629@hufs.ac.kr
사진 아트엘 제공

정든 학교를 떠나 새롭게 시작해요



▲졸업장을 받는 학생들

지난달 16일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오버마홀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 1,725명의 졸업생이 참석했으며 △학사 1,859명 △석사 434명 △박사 43명에 대한 학위가 수여됐다. 이 행사엔 김인철 총장과 민동석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안수현 대학원 교학처장의 개식

사를 시작으로 △김인철 총장과 민동석 총동문회장의 축사 △최우수 성적상 · 단과대학 학업 성적 우수상 수여식 △박사학위수여 △석사학위수여 △학사학위수여 순으로 식이 진행됐다. 김인철 총장은 “주변 환경과 소속집단을 반박하고 비난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은 긍정 · 활동적인 공동체에서 이사회를 변화시키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민동석 총동문회장은 “사회생활을 해보니 인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낀다”며 “총동문회를 통해 학생들이 도움을 얻고 삶의 경험을 잘 전수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졸업식에 참석한 이혜빈(상경 · 경영 12)씨는 “졸업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졸업장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학위증을 받으면 탈출한 느낌일 것 같았는데 이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글캠 통학버스 모바일 승차권 시스템 도입 및 기존 승차권 사용 종료

다음 달 1일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를 통해 간편하게 통학버스 승차권을 △구매 △취소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졸업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오주리 △임채현 △최예안(경상 · GBT 16)씨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사항들을 교내 부처와 함께 논의한 결과다.

모바일 승차권은 페이코 온라인 간편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계좌이체 △페이코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페이코 앱에서 캠퍼스 인증용 QR코드를 스캔하고 캠퍼스를 인증한다. 그 다음 ‘생활’ 메뉴속 ‘캠퍼스’ 메뉴에서 승차권 구매를 클릭하고 결제하면 된다. ‘선물하기’를 통해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글로벌캠퍼스 통학버스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승차권을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수신자가 페이코 회원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MY’ 메뉴에서 사용할 승차권을 선택한 후 버스 내 단말기에 바코드를 스캔해 모바일 승차권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모바일 승차권을 도입하면서 기존 생활협동조합 직영매점에서 판매하던 승차권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판매가 종료된다. 기존 종이 승차권은

이번 달 30일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사전에 구매해둔 승차권은 이번 달 말까지 △어문관 △교양관 △백년관 매점에서 환불 가능하다. 판매가 종료된 뒤부터 12월 20일까지는 후생관 문구점에서만 환불 가능하며 그 이후엔 불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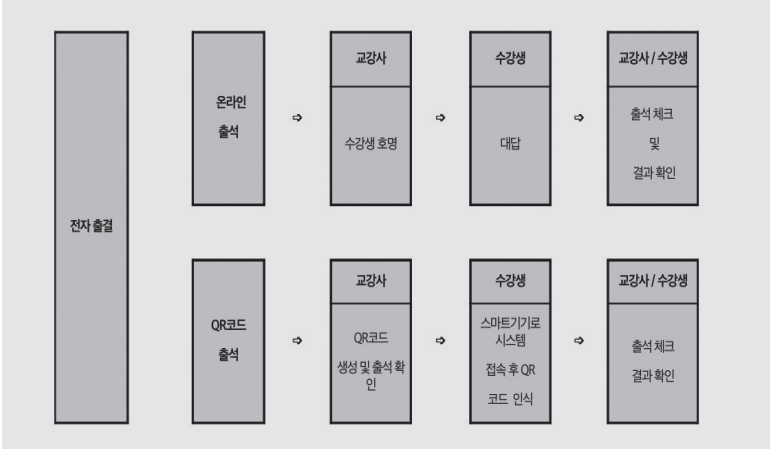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FILA

www.fila.com

이번 학기부터 전자출결시스템 도입돼



▲전자출결시스템과정을 정리한 표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제외한 이번 학기 전체 개설 교과목에 대해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출결시스템은 많은 인원이 수강하는 수업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도부터 대학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전자출결시스템은 △지문인식△무선인식(RFID)△블루투스를 장착한 학생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전자출결시스템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강사들은 △전자출결시스템 웹페이지 접속△강의실 컴퓨터 바탕화면 전자출석관리 아이콘 클릭△학교홈페이지→교직원→전자출결관리시스템 접속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수업의 QR코드를 생성해 강의실 앞 스크린에 띄어놓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개인 스마트폰에 우리학교 어플을 설치해 해당 과목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출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전자

출결시스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어플을 설치해야하며,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교·강사에게 직접 출석 확인을 받아야한다. 이후 반드시 출결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 시엔 즉시 교·강사에게 수정을 요청해야한다.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출결관리△출석현황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성 확보△학사정보 통계 및 분석 용이△종이 출석부의 폐지로 보관 서류 감소△평가 대비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기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종이 출석부 출결 방식과 전자출결시스템이 병행되지만 다음 해 1학기부터는 전자출결시스템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총동문회 주최 동문 멘토링 캠프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돼



▲동문멘토링에 참가한 학생들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학교와 우리학교 총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HUFSSX HUFSS 동문 멘토링 캠프(이하 동문 멘토링)'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동문 멘토링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멘티와 멘토로 만나 우의를 다지고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엔 멘티와 멘토 1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해외 멘토의 LIVE 화상토크△다른 멘토와의 만

남△MBC 우리동네 피터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우리학교 총동문회는 동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기획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친목을 넘어 우리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에 실시된 동문 멘토링 역시 이러한 취지의 일환이다. 동문 멘토링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학교 동문들이 후배들의 길잡이가 돼준다. 해당 행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팀별로 진행된다. 또한 여름에는 모든 멘토와 멘티가 캠프 형식으로 열린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민동석 총동문회 회장은 "총동문회가 하고 있는 동문 멘토링은 취업만을 위한 단기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

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을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장기 차세대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고 말했다. 또한 "동문들이 나서서 재학생들에게 포괄적인 멘토링을 하는 대학은 우리학교밖에 없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단비(경상·국제금융 15)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멘토들이 학생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나중에 이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정하(경영·경영 17)씨는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취업준비과정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모의국제연합(HIMUN), 제43차 우리학교 모의유엔총회 개최해



▲모의유엔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집트 대표 (출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지난달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제43차 우리학교 모의유엔총회가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신(新) 디지털 통상 규범 모색'이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급격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현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해 총회에는 △우리나라△미국△프랑스△인도 등 11개국 대표 학생들이 유엔의사규칙에 의거해 각국의 언어로 의제에 대한 발언했다. 발언의 내용은 유엔 공식 언어인 △영어△중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로 진행되며 한국어로 통역된다.

또한 이번 총회에는 △윤석만 서울캠퍼스 부총장△민동석 총동문회장△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오종진 국제교류처장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 주최자인 이학영(서양어·프랑스어 16)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경제는 나날이 발전해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총회가 열리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생 외국어 학술단체로 이번 해 창설 61주년을 맞았다. 모의국제연합 구성원들이 기획하는 모의유엔총회는 국내 최초의 모의유엔·외국어 학술행사로 출발했으며 범대학적 학술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2016년 실시된 제40차 모의유엔총회부터는 유엔공보국(UNDP)이 발표한 모의유엔 의사규칙인 'UN4MUN' 지침서를 도입돼 실제 유엔회의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제17회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 우리학교에서 개최돼

제17회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13개의 과학 올림피아드 중 하나로 2003년부터 매년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본 대회는 참가자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경합하는 대회로 다양한 언어학적 자료를 두고 △통사론△음운론△화용론 등 세부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대회는 개인전과 4명의 참가자가 한 팀을 이루는 단체전으로 나뉜다. 개인전은 여섯 시간 동안 다섯 문제를 푸는, 단체전은 30분마다 한 번씩 답안지 초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에선 우수한 성적을 얻

은 60명의 학생에게 메달이 수여됐다. 개인전에선 켄지안(캐나다)씨가 98.7점으로, 단체전에선 슬로베니아팀이 113점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편, △네이버 파파고△국립 한글 박물관△외국어 연구센터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유엔이 지정한 '2019 세계 토착 언어의 해'를 기념하며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참가해 매해 꾸준히 2팀이 출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메달 2개△은메달 3개△동메달 11개를 획득했으며 2016년엔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팀은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를 통해 선발되며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제 대회에 출전한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우리학교 방재현 교수, 인공지능 기술 발명 특허 등록해

지난 5월 초 방재현 우리학교 정보·기록학 융합전공 겸임교수가 시청각 기록물 검색을 위한 인공지능 발명 특허를 등록했다. 이 특허의 정식명칭은 '연령대별 얼굴 사진 학습을 통한 지능형 얼굴 사진 위치 검색장치' 기술특허(제10-1981634호)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 특허에는 연령대별 과거 얼굴을 생성한 후 해당 인물이 포함된 사진을 검색하는 기술이 담겼다. 기존엔 대량의 사진정보를 관리하는 분야에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물의 과거 사진과 현재의 얼굴이 다르면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명을 통해 특정 인물의 현재 사진에서 연령대별 얼굴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

해 과거 사진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중국에선 유사한 기술을 이용해 10년 전 유괴된 아이를 찾아주는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방재현 교수는 "현시대엔 전자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정제할 기술이 필요했다"며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행정 기록관리에 응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 인공지능 기술 중 인공지능망을 자칭하며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생성한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글로벌캠퍼스 후생관의 메뉴 변경 및 어문관 학생식당 새롭게 단장돼

지난 방학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의 후생관과 어문관 학생식당 공사가 진행됐다. 먼저 후생관 2층에 있던 'COOP SNACK' 매장은 1층 학생식당으로 이전됐다. 다른 층에 있던 △김밥△라면△떡볶이 등 분식 메뉴가 한 곳에 위치해 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협)은 방학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고해 휴대성이 좋은 핫드그와 튀김 메뉴를 신설했다. 또한 후생관 1층 학생식당과 3층 맘스터치 내에 무알콜 맥주 자판기가 설치됐다. 새로운 메뉴 중 떡볶이 류에 대한 요청을 반영해 학생식당에 떡볶이류 전용 코너를 신설했다.

생활협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문관 학생식당을 푸드코트 형식으로 운영한다.

어문관 1층에 있던 기존의 △카페테리아△라면코너△일반식당을 철거하고 △Fryday(파스타)△만권화밥(고기덮밥)△토스트럭(토스트)△더진국(국밥) 매장을 신설했다. 그러나 어문관 학생식당은 업체 사정 및 공사량 증가로 개장이 일주일 늦어져 이번 달 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혜연(국제·글로벌 19)씨는 "기존 어문관 식당 메뉴는 저렴했지만 다양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외부 업체가 들어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져 기대되고 신설했던 메뉴를 직접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당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우리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여름학교 성황리에 마쳐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가 주최한 ‘세미오시스여름학교(이하 여름 학교)’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수화관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여름학교에선 ‘세미오시스 인문학’을 △미학적 인간△기호적 인간△포스트휴먼과 인간학의 관점에서 소통·탐구했다. 여름학교는 △개강식△토크쇼△강의△세미나△북콘서트△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문연구자 △대학생△대학원생△일반 시민들을 포함해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는 지난 40년간 국내외 여학·문학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한 우리학교의 언어연구소와 외국문학연구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학제적 연구와 교육을 진행했다. 이 연구센터는 학부·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계전공 과정 신설을 통한 통합적 학문후속세대 육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청소년 강좌△산학협력 프로그램△학술 출판사업△고급콘텐츠 서비스 등 여러 단위의 사회환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중이다. 연구센터는 향후 국내외 학술연구단체와 사회단체와 소통을 통해 21세기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문학 연구·교육모델을 창출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센터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조장연 우리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인도네시아 최초 외국인 총장으로 선출돼

조장연 우리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이하 조 교수)가 인도네시아 최초의 외국인 총장으로 선정됐다. 조 교수는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교육기업 인코르(Inkor)를 설립하며 현지 교육 당국과 접촉했다. 그 후 사이버대학교(이하 사이버대)에 대한 새로운 법 규정을 마련했다. 조 교수는 인도네시아민족대학교(UNSAS)와 인코르(Inkor)가 절반씩 투자해 ‘아시아사이버대학교(Universitas Silber Asia-USA)’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경영 △회계·세무 △데이터·정보시스템 △정보엔지니어링 등의 5개 학부로 구성되며 개교 5년 안에 40만 명의 학생 유치를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 교수는 “한국에는 21개의 사이버대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하나도 없기에 온라인 교육이 인도네시아 교육 문제의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이버대를 통해 현재 현저하게 낮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50%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다들 불가능이라 했던 일이 실현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사이버한국외대 부총장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 최초의 사이버대를 잘 운영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 교수는 우리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에 우리학교 경영학과 정교수로 부임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학교 경영대학원장으로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우리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미경 기자 99migyoung@hufs.ac.kr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 동대문구와 MOU 체결해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은 동대문구와 MOU를 체결하고 인도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 인도연구소는 동대문구민에게 인도 및 남아시아의 문화와 인문학을 소개한다.

이번 달 19일부터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조준호 우리학교 교수의 ‘인도의 지혜: 자아와 행복’ 강좌가 진행된다. 이 강좌에서는 인도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고 명상을 통해 자아와 행복을 찾는 인도 특유의 철학체계를 체험할 수 있다. 이동원 우리학교 강사와 류현정 서울대학교 강사가 번갈아 가며 ‘인도 문학과 인간이야기’ 수업을 열 예정이다. 이 수업에서 인도의 유명한 고전 문학인 ‘마하바라타’와 ‘라

마야나’ 등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춰 흥미롭게 해석한다.

한편, 우리학교 인도연구소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도 인문학의 대중화와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지역인문학센터인 간디아슈람을 운영한다. 간디아슈람은 △인도 인문자신의 국내 확산△비폭력 정신 확산△전국적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의 △문학△철학△역사와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문강좌를 개설했다.

최민선 기자 99mimsun@hufs.ac.kr

트로이카, 동대문구 3개 대학의 정기 교류대향전 열려

이번 달 9일 트로이카 역동전 출성식이 서울시립대학교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트로이카는 △우리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기적인 교류대향전이다. 트로이카는 본래 러시아어로 숫자 3 혹은 삼두마차를 의미한다. 한편 해당 교류전은 트로이카 외에도 ‘삼동제’로도 불리는데 이 때 삼동제는 세 대학교의 대동제(축제)를 의미한다.

트로이카는 △체전 중심의 역동전△공연·예술 중심의 악동제△학술·전시 중심의 감동제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체전 중심의 역동전은 △남자 축구△여자 축구△남자 농구△테니스△피구△이스포츠(B-Sports)로 구성된다. 이스포츠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오버워치△스카트라이더 등 여러 게임 종

목이 포함된다. 트로이카는 이번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예선전을 가진 후 23일부터 27일까지 결승전을 진행한다. 예선전은 종목별 리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리학교는 이번 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학교대표선발전을 통해 모든 종목의 대표를 선발했다. 다음으로 이번 달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감동제와 악동제가 열릴 예정이다. 감동제와 악동제에서는 3개 대학이 우리학교 잔디광장에서 모여 △중앙 음악동아리 경연△문학의 밤△포포노 영상제△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포노: 함께 두다, 통합하다 등의 뜻을 가진 러시아어

한태현 기자 98madc@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 봉사단, 베트남에서 4년간 봉사활동 진행해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총 8박 9일 동안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하계 글로벌 봉사단(이하 글로벌 봉사단)이 베트남 ‘빈롱시’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해 글로벌 봉사단은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약 120명의 빈롱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어스음악△미술△체육△과학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만 아니라 학교 측 재정적 지원을 통해 빈롱시의 낡은 학교 외벽에 새롭게 페인트칠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현지 지역사회에 기

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봉사단원들은 봉사활동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9일에 베트남 현지의 동문들과 함께 ‘동문의밤’ 행사를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6년 베트남에서 처음 시작된 봉사활동은 이후 4년 연속으로 계속됐다. 더욱이 이번 봉사활동의 경우 빈롱시 교육청의 지속적인 재방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태현 기자 98madc@hufs.ac.kr

우리학교 정창욱 전자물리학과 교수, 새로운 비휘발성기억소자 발견해



▲정창욱 교수 (한국외대 물리학과)



▲Rainer Waser 교수 (독일 아헨공대)



▲Regina Dittmann 교수 (독일 아헨공대)



▲N. V. Raveendra 교수 (한국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Octolia 교수 (한국외대 물리학 박사)

지난달 정창욱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정창욱 교수(이하 정 교수)가 국제저명학술지(SCI)중에서도 상위 1%에 속하는 저명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논문을 게재했다. 정 교수는 해당 논문을 △독일 아헨공대의 R.Dittmann 교수△R.Waser 교수△서울대학교 김미영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에는 고유한 *층상구조를 가지는 금속산화물인 SrFeOx에서 발생하는 저항스위칭 메모리 현상이 담겼다. 저항스위칭 메모리 현상이란 저항의 차이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항스위칭 메모리는 현재 사용되는 이동식저장장치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와 같은 저장매체를 대체할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로 기대돼 왔다. 또한 저항스위칭 메모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저항스위칭 기억소자는 ***뇌모방 정보처리와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정 교수와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SrFeOx에서 저항스위칭을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상전이가 매우 재현성 있게 10ns이하의 초고속으로 기억상태를 바꾸는 스위칭이다. 이번 연구는 스위칭을 나노 수준에서 분명히 규명해 독창성과 규명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이탈리아의 첨단 가속기 연구소에서 나노 분광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쾌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8개의 신문에 9월 5-8일에 실렸다.

*원자가 공유결합 등에 따라 강하게 결합해 조밀하게 배열한 면이 평행하게 층처럼 구조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매체로 쓰는 데이터 장치
***뇌에 기반한 정보처리 매커니즘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A교수 장기근속 포상, 끝나지 않은 논란

지난달 1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교육부 건물 앞에서 국제지역대학원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A교수가 성폭력 의혹에 대해 3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 장기근속 포상을 받은 것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장기근속자포상규정을 이유로 수상 취소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비대위와 학교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A교수 사건과 장기근속 포상 내용△비대위의 주장과 교육부 및 학교의 입장△다른 학교의 교원 징계 사례에 대해 알아봤다

◆ A교수 사건과 장기근속 포상 논란, 그 내용은?

지난해 3월 19일,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 A교수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B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 당시 A교수는 논문 때문에 힘들어하던 B씨에게 논문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그 후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B씨를 불러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A교수는 방송 출연을 할 때마다 밥을 먹자며 B씨를 불러냈고 저급한 말과 행동으로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게재되고 반나절이 지난 뒤 A교수는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서”란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제보자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입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교△동료 교수△학생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교수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사건 당시 학교 측은 A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를 소집한 뒤, 진상조사를 했다. 그 후 조사위원회는 재단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 5일, 학교 측과 징계위원회는 교내 행정부처에 A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결과를 공고했다. 비대위는 학교본부가 각 부처에 송부한 교원인사발령 공문을 통해 A교수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징계과정과 결과를 학생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학교측을 비판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각 부처에 공고한 것을 통해 학생에게도 공개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교무처장도 “A교수의 3개월 정직 처분 과정은 징계위원회의 처분 사항으로 그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2017년 9월 1일자로 10년 근속을 마친 A교수는 이번 해 4월 19일에 열린 우리학교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10년 장기근속 포상으로 표창장과 금 3돈을 받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19일에 장기근속 포상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학교측이 이를 인식해 포상을 미뤘다가 이번 해 4월 19일에 포상을 했다고 주장한다.

◆ 서울캠 비대위의 주장과 교육부 및 학교측의 입장

지난달 13일, 비대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교육부 건물 앞에서 국제지역대학원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해 교수가 받아야 할 것은 금이 아닌, 마땅한 처벌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이종원(사범·중국어교육 17)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비대위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서양어대△영어대△사회대△일본대△IT학부 학생회의 성명서 낭독이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끝이 났다.

비대위는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취소와 파면△학생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정보공개요청 총 3가지를 요구했다. 본보는 비대위의 주장

과 학교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매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고 비대위의 보도자료를 받았으며, 나인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첫째, 비대위는 A교수의 파면과 장기근속 포상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우선, A교수의 파면 요구다. 비대위는 A교수의 3개월 정직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교무처장은 파면 요구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재단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한 사항을 다시 징계위원회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 비대위는 A교수는 징계를 받은 교원으로서 장기근속포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A교수가 “규정상 지난해 4월 19일에 포상돼야 하는 장기근속포상을 사회적 물의를 인식해서 이번 해에 포상했다”며 “이는 해당 문제에 대한 학교의 단일한 인식”이라 비판했다.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이사회에 A교수 사안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은 “A교수는 2017년 9월 1일에 10년 장기근속을 완료했다”며, “A교수는 포상대상자로

고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추후 교육부로부터 징계결과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교무처장도 A교수의 3개월 정직 처분 과정은 “징계위원회의 처분 사항”으로 “그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현재 비대위는 공식 에스앤에스(SNS)에 A교수 사건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올리고 있다. 또한, 서명운동을 하고 이를 학교본부에 전달하려고 한다. 3000명 서명을 목표로 하는 서명운동은 △A교수의 파면△장기근속 포상 철회△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독려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 17)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비대위장은 추가적 대응 계획에 대해 “개강 후 학내 기자회견과 학교 규탄 문화제와 같은 추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의 효력은 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다른학교의 교원징계 사례는?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 C교수는 학부생 성폭행 혐의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의 여파로 C교수는 모든 강의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중앙대 인권센터가 C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성폭력’이 아닌 ‘교원 품위 손상’으로 명명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중앙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학교는 결국 해당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임은 파면과 다르게 교원연금을

수령을 가능케 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 D교수는 대학원 연구실 소속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저급한 농담을 하고 강제 추행을 해 파면됐다. 해당 혐의는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폭로글이 게재되며 처음 드러났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후 페이스북 미투 폭로 페이지에 다시 게시되며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고려대 교원징계위원회는 D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파면은 교원징계 중 최고수준이며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근무 연차에 따라 연금도 삭감된다.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자동 포함되며 그의 10년 복무기간에 그는 포상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포상규정에는 포상 이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포상을 취소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장기근속포상 취소 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둘째, 비대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교원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비대위는 “해당 절차가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과정에서 학생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징계절차를 신뢰하기는 힘들고,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징계결과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교무처장은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이사△외부인사△교내 교수로 위원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학생위원은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왔다”는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셋째, 비대위는 교육부에 징계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학교 “징계위원회 절차의 모순 때문에 징계과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가해 교수에 대한 학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잉글리시 존(English zone), 기회인가 부담인가

잉글리시 존(이하 잉존)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영어 교육 제도이자 영어만을 사용해야하는 교육 공간이다. 처음 잉존은 글캠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정규 수업 이외에 추가로 영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또한

편의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간을 활용해 무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잉존의 본 취지였다. 하지만 잉존 수강이 의무로 전환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일부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잉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이란?

잉존은 현재 글캠프의 △어문관△공학관△흡수동(HUFS Dorm)에 위치해 있다. 잉존에선 주로 원어민 영어 수업이 이뤄지며 △일대일 튜터링 프로그램 ‘잉글리시 클리닉’ (이하 잉글리시 클리닉)△영어로론단△영어에세이반도 운영되고 있다. 잉존을 이용하기 위해선 방명록을 미리 작성해 예약을 해야 한다.

먼저, 대학영어 수강생은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IFLEP)’ 결과에 따라 △진리△평화△창조 등급으로 나뉜다. 이때 등급별로 잉존 의무 참여 횟수는 각각 △면제△3회△6회로 정해진다. 이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성적 산출시 평가총점에서 5점이 감점된다. 그러나 기본 의무 참여 횟수보다 6회 이상 수강했을 경우엔 가산점 1점이 부여된다. 신입생세미나와 진로설계세미나 수강생도 잉존 3회 참여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학영어와 같은 학기에 수강한다면 횟수를 추가해 이수할 필요는 없다. 이 중 대학영어1·2와 신입생세미나는 교양필수 과목이므로 졸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즉, 글캠프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졸업 전 잉존 수강을 적어도 3회 이상 경험하게 된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설명하는 잉존의 목적은 세 가지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원어민과의 영어 학습기회 무료 제공△잉글리시 클리닉을 위한 공간 제공이 주목적이다. 외국어교육센터의 교수부장인 이진환 책임연구교수(이하 이 교수는) “학생들이 잉존 의무 수강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잉존을 의무로 지정한 것은 학생에게 잉존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7년 잉존시행 초기엔 의무 수강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1학년 때만이라도 의무 시행을 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어 이 교수는 “잉존이 정규 회화 수업은 학점이 부담스럽고 방과 후 영어 회화 수업은 비용이 들어 꺼려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잉존의 원어 수업이 △베이직(Basic)△인터미디어잇(Intermediate)△어드밴스드(Advanced)와 같이 수준별로 구성되기에 개인 수준에 맞게 신청을 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잉글리시 존, 학생 불편과 학교 입장

학생들의 편의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잉존이지만, 매 학기마다 잉존을 활용한 영어 교육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의문과 불만이 제기됐다. 먼저, 잉존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신청방법이었다. 잉존 수업을 듣기 위해선 희망 요일에 직접 잉존에 찾아가 예약해야 했다. 잉존 수업마다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잉존 수업 신청인원이 몰리는 학기 말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해진(인문·철학 18) 씨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기다렸지만 결국 신청인원이 다 차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잉존은 현장 당일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잔여석을 미리 확인할 수도 없었다. 최홍주(자연·수학 19) 씨는 “공학관과 어문관에서 열리는 잉존 수업의 잔여 좌석을 미리 알 수 없어 여러 번 잉존을 오가는 수고를 했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현장당일예약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면 노쇼(No show)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즉, 예약을 하고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약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학교 측에 발생하는 인력과 업무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

한편 이 교수는 학생들의 예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전산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추가 예정인 별도의 항목에서 원하는 잉존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 희망 강좌 시작 전날 9시부터 해당 수업 10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후 현장에 들어갈 땐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수업 10분 전부터 5분 후까지 입실해야 출석 인정이 된다. 지각할 경우 전산상 출석 인정이 불가하다. 입실 뒤에 모든 수강생에게 개별적으로 출석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수업이 끝나고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확인할 수도 있다. 반면 기존에 사



▲공학관 잉존의 모습

대학영어1·2와 신입생세미나는 교양필수 과목이므로 글캠프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졸업 전 잉존 수강을 적어도 3회 이상 경험하게 된다.

잉존 수업을 듣기 위해선 희망 요일에 직접 잉존에 찾아가 예약해야 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잉존 수업 신청인원이 몰리는 학기 말에 혼란이 발생했다.

학생들의 예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전산 예약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출석 확인용 도장 용지는 없어진다.

△3교시△4교시△5교시△6교시에 개설된 잉존 수업이 기존 자신의 수업과 중복되면 잉존 수업 수강이 곤란하지만 수업 확충이나 조정은 힘들다.

수업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과 수업 주제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용하던 출석 확인용 도장 용지는 없어진다. 휴대폰 미소지 등 기타 사유로 기존 출석 용지를 원할 경우 따로 요청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수업 예약 후 시작 1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없이 결석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센터는 취소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두 번 이상이 된다면 본인이 들었던 잉존 수업 횟수 한번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표 구성 역시 학생 불만의 중심에 있다. 대학 영어 평화반과 신입생 세미나 수강생은 △3교시△4교시△5교시△6교시에 개설된 잉존 수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수업이 해당 시간과 중복된다면 잉존 수업 수강이 곤란하다. 이에 남원정(자연·생명공학 17) 씨는 “잉존 수업이 △1교시△2교시△7교시△8교시에도 개설되면 좋겠다”며 수강의 어려움을 표했다. 전도훈(공과·정보통신 14) 씨 역시 “매주 같은 시간에만 수업이 비어 항상 똑같은 잉존 수업을 들었다”며 아쉬웠던 경험을 털어냈다. 그러나 이 교수에 의하면 수업 확충이나 조정은 힘들다. 수업을 확충하려면 강사료가 늘어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간상의 문제도 있다. 잉존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1교시△2교시△7교시△8교시에만 창조반 작문보충수업과 잉글리시 클리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요일마다 시간표를 달리하기엔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요일에 수업이 꼭 차 잉존 수업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외국어교육센터 측에서 예외적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업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회화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 특성상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 수준에 따라 교육 수준이 좌우된다. 따라서 수강생 간 영어 회화 실력 편차에 따라 수업 난이도를 느끼는 정도도 달라진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난이도는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해 교수가 판단할 사항”이라 말했다. 또한 “수강생의 난이도를 판단해 수업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교수의 재량이며 이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업 주제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남원정씨는 “보통 1학년이 필수로 듣게 되는 잉존 수업에서 ‘어느 회사를 가고 싶은지’ 등 고학년이 고민할 법한 주제를 논한다”며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수업 주제는 영어 실력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교과목으로 구성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처음 교과목을 개설할 때 △정규 교과목에 없는 내용△정규 교과목에 개설하기 힘든 과목△학생들에게 수요가 있는 학습 내용△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데 수업엔 없는 과목△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을 고려해 만들었다”고 수업 구성의 기준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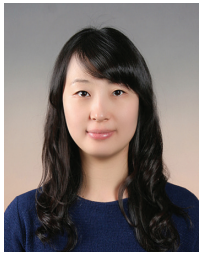


▲어문관 잉존의 모습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Declaração de Independência da Coreia



번역
성효정
포르투갈어과 겸임교수

감수
임소라
포르투갈어과 교수

Com o objetivo de solidar o princípio da igualdade dos homens e de perpetuar o direito de autopreservação da nação à posteridade, eis que declaramos a independência da Coreia e a liberdade do povo coreano a todas as nações do mundo. Os cinco mil anos da nossa história são testemunha dessa declaração que, em nome dos vinte milhões de compatriotas, busca o progresso duradouro e autônomo da nação e partilha o empenho pela restauração da ordem mundial fundada sobre a consciência da humanidade. Tendo a corroboração dos Céus, das circunstâncias e da reivindicação popular pelo direito de conviver com todos os povos, nada no mundo poderá impedir ou deter a proclamação desta nossa independência.

Entre os cinco mil anos de nossa história, a última década foi pisoteada por convicções arcaicas motivadas pelo autoritarismo e usurpação de uma nação invasora. Quantas vítimas perderam a vida? Quantas pessoas foram proibidas de pensar livremente? Quanto de nossa honra e dignidade foi violada? E quantos coreanos brilhantes foram privados da oportunidade de contribuir ao crescimento mundo afora?

Neste momento, a incumbência mais urgente é asseverar a independência da nação para nos livrarmos das dores do passado, vencermos o atual sofrimento, afastarmos ameaças futuras, recuperarmos e reanimarmos a dignidade e a integridade da nação, ampararmos o engrandecimento de cada indivíduo da nação e não legarmos esta desonra a gerações futuras, permitindo que nossos filhos gozem da plena felicidade. Hoje somos protegidos por vinte milhões de corações coreanos ávidos pela independência da nação e pelo exército da justiça erguido sobre valores universais da humanidade e da moralidade. Assim sendo, não há força que entrave e não há objetivo que esteja além de nosso alcance.

Não estamos aqui apenas para acusar o Japão de repetidos casos de desrespeito a diversos acordos solenes firmados desde o Tratado de Amizade de 1876. E nem para repreender o Japão, que nos descreve como descivilizados em seus livros e nos humilha em todas as suas políticas, saboreando o prazer de dominador na nossa própria

terra, através da descarada demonstração de desprezo pela nossa civilização e tradição milenar em todos os aspectos e maneiras. Tão urgente é a conscientização do nosso próprio povo, que não temos tempo para procurar a culpa nos outros. Tão urgente é o agora, que não temos tempo a perder procurando os erros do passado. Nosso dever neste momento é a restauração de nós mesmos e não a destruição dos outros.

A missão da Coreia neste momento é traçar o destino da nação fundado sobre nossos próprios princípios, e não condenar os invasores movidos por ressentimentos do passado. Nosso objetivo é remediar a conjuntura abnormal e deficiente originária da ambição cega pelo poder e brado do invasores, a fim de recuperar condições justas e apropriadas, dignas de uma nação. A anexação contra o arbítrio da Coreia cavou um fosso, cada vez mais profundo devido a tratamento despótico, opressão sufocante e levantamentos falsos, que impossibilita a volta dos laços de amizade entre os dois povos. Está mais do que claro que o caminho mais curto para a reaproximação das duas nações é corrigir os erros do passado e cultivar novas relações de amizade baseadas na verdadeira compreensão e empatia mútua. Reprimir as mágoas de vinte milhões de coreanos não é a solução. Essa repressão não será prejudicial apenas à perpetuação da paz na região, mas também intensificará o receio e o temor que os quatrocentos milhões de chineses vêm sentindo em relação ao Japão. Neste caso, não haverá outra consequência senão a decadência de todo o Extremo Oriente.

Neste contexto, a declaração de independência da Coreia não somente outorga ao povo coreano o pleno direito de seguir a sua própria vida e prosperidade como tal, mas também desvia o Japão do caminho equivocado para conduzi-lo a exercer acertadamente seu papel de potência regional, livrando a China da contínua apreensão que a aflinge. Destarte, a independência da Coreia é um passo imprescindível para a construção da paz mundial, da qual não se pode excluir a do Oriente. Como dizer que uma questão de tamanha importância não passa de uma ação sófrega da nossa parte? Eis que um novo mundo se desdobra diante de nossos olhos. Os tempos de coerção se vão e deixam lugar para justiça e igualdade. Os valores morais e humanitários, cultivados por tanto tempo, finalmente virão à tona da nossa história. A chegada da primavera apressa o despertar de todas as criaturas. Se até agora estivemos passando por um longo período de inverno rigoroso e sufocante, eis que novas energias e brisas afáveis da primavera nos revigoram. E no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embalo das mudanças neste mundo, nós não hesitaremos e não sentiremos medo ao cumprir o nosso dever. Zelaremos por nosso direito à liberdade e à vida plena. Cuidaremos para que a soberania floresça sobre toda a nação repleta desta energia primaveril. É para isso que nós fomos despertados.

Homens, mulheres, crianças e adultos, levantemo-nos e reedifiquemos a nação! Temos em mãos valores humanitárias e a verdade como armas. Sendo abençoados com o zelo de todos os nossos ancestrais e o apoio do mundo inteiro, a vitória é certamente nossa. Prossigamos sem cessar.

Três juramentos

1. Nossa incumbência é em prol da vida, humanidade, justiça, dignidade e honra do povo coreano. Lutaremos pela liberdade, sem nunca nos deixar levar por sentimentos de ódio por outros.
2. Levaremos e anunciaremos o desejo de todo o povo coreano, até a última pessoa, até o último momento.
3. Todas as nossas ações serão pautadas e solenes; e nossas palavras honoráveis e justas.

Ao primeiro dia de março do 4252o ano da Dinastia de Joseon (1919),

Son Pyong-hui, Kil Son-ju, Yi Pil-chu, Paek Yong-song, Kim Wan-gyu, Kim Pyong-jo, Kim Chang-jun, Kwon Tong-jin, Kwon Pyong-dok, Na Yong-hwan, Na In-hyop, Yang Chon-baek, Yang Han-muk, Yu Yo-dae, Yi Kap-song, Yi Myong-yong, Yi Sung-hun, Yi Chong-hun, Yi Chong-il, Lim Ye-hwan, Pak Chun-sung, Pak Hui-do, Pak Tong-wan, Shin Hong-shik, Shin Sok-ku, O Se-chang, O Hwa-yong, Chong Ch'un-su, Choe Song-mo, Choe Rin, Han Yong-un, Hong Pyong-gi, e Hong Ki-jo



HUFS 비정상회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 스페인

유럽대륙의 서쪽 끝인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국가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스페인 특유의 정열적인 문화 때문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스페인의 매력이 무엇인지 우리학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알함브라 궁전



▲파에야

스페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정열이예요. 스페인의 전통 춤인 플라멩코는 정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문화예요.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돼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로 인정받았습니다.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 민요 무용 스키타반주가 어우러져 형성된 민속예술이예요. 플라멩코는 수많은 공동체와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집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집시 집단이 플라멩코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예요.

스페인에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명한 관광도시들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그라나다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라나다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라나다에는 '붉은 성'이라는 뜻을 가진 알함브라 궁전이 있어요. 1823년에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의 알함브라 이야기 가 출간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 궁전은 아랍 건축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끝없이 이어진 복도와 방,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은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궁전 안에는 여름별장인 헤네랄리페도 같이 있어요. 헤네랄리페의 세로형 정원은 물과 정원수가 어우러진 이슬람 조경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스페인에는 먹거리도 많아요. 스페인의 전통 요리인 파에야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음식이예요. 파에야는 프라이팬에 △고기 △해산물 △채소를 넣고 볶은 후 물과 쌀을 넣고 끓이다가 쌀을 넣어 익힌 요리예요. 가족 모임이나 종교적인 행사에 △쌀 △생선 △향신료를 넣어 요리해 먹던 전통에서 시작됐죠. 지금은 지역마다 만들어 먹는 방식이 달라서 스페인을 여행하다 보면 많은 종류의 파에야를 먹어볼 수 있을거예요. 이처럼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한 스페인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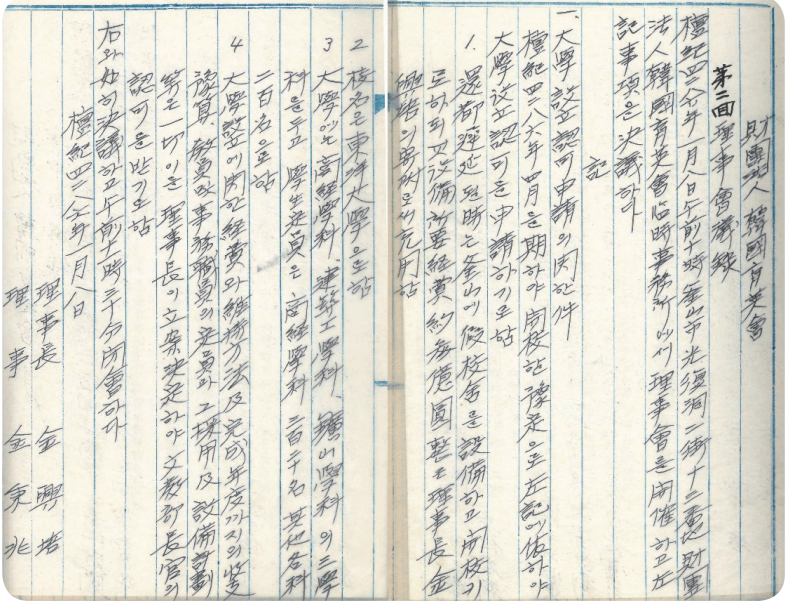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우리학교 설립 논의가 담긴 재단 이사회 회의록 공개돼



▲우리학교 재단 이사회 회의록



▲제2회 한국국영회(현 동원국영회) 회의록

활동이 담긴 회의 기록이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1953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학교는 '동양대학'이라는 명칭의 △상경학과 △건축공학과 △광산학과 등으로 구성된 대학 설립 추진을 진행했었지만 전후(戰後) 정부의 국가 재건 정책과 이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의해 외국어에 능통한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최초의 설립 안이 변경됐다.

이 밖에도 기록엔 △재단 운영 △대학 설립을 위한 내부 의사 결정 △문교부 승인 과정 △대학의 예산 및 인력 구성 △초대 학장 임명 △설립 후원회 구성 △정부의 설립 지원 방침 등 국내 최초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 기관 설립과 초기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우리학교의 정체성과 초기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가끔은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끔은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선 우리학교 양 캠퍼스 주변 가볼만한 곳에 대해 알아봤다.

◆전통이 살아있는 곳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의 시초가 된 광장 시장 전경(출처:블로그 트래블리더)

동대문구에 있을 법한 이름을 가진 ‘동대문 시장’은 사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인 동대문 시장은 1905년 당시 약 90여 개 점포로 구성된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광장시장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월남전 때 군용 물자를 비롯한 각종 물건 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다시금 시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게 됐다. 이로 인해 청계천 주변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시장이 형성됐다. 동대문 시장은 하나의 시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광장시장을 포함한 △평화시장△동대문 종합시장△신(新)평화시장 등 청계천 좌우로 쪽 뺨은 시장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이곳에는 약 30여 개의 건물과 3만 개가 넘는 점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대문 시장엔 야외공연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비보이 공연△가수초청공연△댄스 경연 등 각종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동대문 시장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심에서 느끼는 자연 ‘홍릉수목원’



▲홍릉수목원 전경(출처:visit seoul net)

식막한 도시에서도 자연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홍릉수목원’이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6호선 고려대역에 인접한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1세대 수목원이다. 이는 1922년 서울 홍릉에 임업 시험장이 설립되면서 조성됐다. 여기서 홍릉은 고종의 아내이자 조선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능을 지칭한다. 이처럼 홍릉수목원은 홍릉이 있던 자리에 조성돼 홍릉수목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홍릉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의 부속 수목원이다. 따라서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기초 식물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한다. 홍릉수목원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에는 학생 단체 관람객, 그리고 일요일에는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하고 있다. 한편 홍릉수목원은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 공휴일에 휴장한다.

◆한국 민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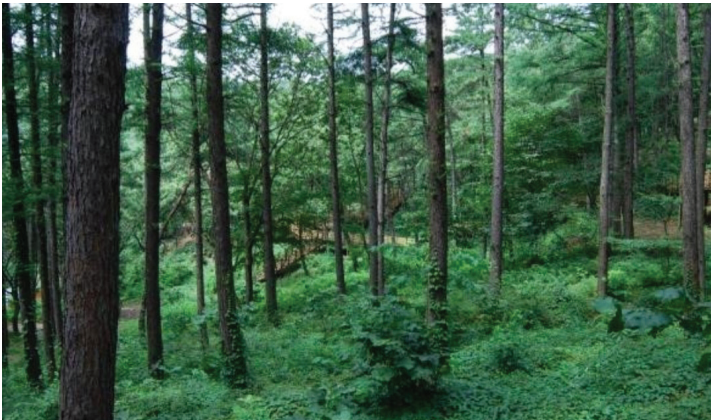


▲용인 한국 민속촌 전경(출처:블로그 사진쟁이 노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은 ‘용인민속촌’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전통문화 테마파크 형식으로 운영된다. 1974년, 교육 및 관광 목적으로 개장한 한국민속촌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통문화 관광지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조선시대 체험 마을은 전국 각지에서 이천하거나 새로 복원한 실물가옥으로 이뤄져 보다 생생하게 당시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계절마다 다른 조선시대의 생활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민속촌에서는 야외에 마련된 △체험형 전시△전통 생활 공예△절기별 세시풍속 체험 등을 통해 선조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을 그저 전통문화만 체험하는 일반적인 민속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한국민속촌에는 △바이킹△회전목마△패밀리 코스타(롤러코스터)△민속신앙 바탕의 귀신전(廬) 등 15가지의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다. 이처럼 한국민속촌은 다양한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볼거리△먹거리△체험시설로 구성돼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용인자연휴양림



▲용인 자연휴양림 전경(출처:용인자연휴양림)

경기도 용인시에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있다. ‘용인자연휴양림’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6년에 걸쳐 162헥타르에 달하는 넓이로 조성됐다. 이곳은 목조건축물 대부분에 낙엽송과 같은 목재를 사용해 국산 목재 사용에 이바지했다. 용인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야영장△어드벤처 시설△지프라인△야외광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로 숙박시설은 △숲속 체험

관△숲속의 집△목조체험주택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이 중 목조 체험주택은 △우리나라△핀란드△몽골의 전통 가옥 형태로 지어져 숙박객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내와 모험심을 키우는 어드벤처 시설이 있다. 정식 명칭은 ‘에코어드벤처’로, 이는 크게 △원숭이△침팬지△킹콩의 3개 코스로 구성되며 코스별로 이용 가능한 연령대 및 난이도가 다르다. 먼저 원숭이 코스는 5, 6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난도 코스다. 또한 침팬지 코스는 7세에서 10세정도 아이들을 위한 곳이며 킹콩 코스는 11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반 탑승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용인자연휴양림에는 스틸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6종의 지프라인 시설도 존재한다. △펄크로△매트루미△독수리△알바트로스 등 총 6개 코스로 구분되며 3개의 난이도로 나뉜다. 이 중 펄크로 코스가 가장 쉽고 알바트로스 코스가 가장 어렵다. 이러한 지프라인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있으며 총 1,238m를 지프라인에 의지해 이동하게 된다. 특히 울창한 숲속을 지나기 때문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용인자연휴양림에는 야영장, 야외광장 등 여러 휴식 공간이 존재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한다.



▲용인 자연휴양림 안내도(출처:블로그 흐린세상건너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여야 평행선

최근 조국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딸의 입시 부정과 가족의 채무 변제 불법 면탈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국 응원합니다'라는 팻말을 들며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측과 '조국 사퇴 하세요'라 외치며 사퇴를 촉구하는 측으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달 6일,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이하 여야)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세 및 시민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 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를 내정했다. 해당 결정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는 △조 후보자가 족의 재산형성과정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의 직행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달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해당 인사청문회는 1차 청문회가 무산되고 해명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 4일 만에 개최됐다. 이날 청문회는 질의응답 식으로 이뤄졌으며 14시간여 동안 계속됐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조 후보자 딸인 조민 씨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 관련 의혹이다. 2008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이하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조민 씨는 천안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 영어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민 씨가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과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더불어 조민 씨는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동양대학교(이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내역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달 3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중앙일보에 “나는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히고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이하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사용한 자기소개서 내용 일부를 조작하는 데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했다.

두 번째,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 펀드 관련 의혹이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금융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소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용된다. 지난 2017년 7월, 조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 운용기업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10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사전에 투자처의 수익률 정보를 알고 의도적으로 거액을 투자했을 가능성을 비롯해 해당 펀드가 금융당국에 적법하게 등록돼 운영됐는지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임원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번째는 조 후보자 가족의 웅동학원 소송 관련 의혹이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인 조보현 이사장(이하 조 이사장)이 운영했던 사학재단이다. 1990년대 조 이사장은 조 후보자 동생 회사에 건물 중측 업무를 맡기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2006년 10월 25일,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밀린 건축 공사비를 요구하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웅동학원 측은 변론없이 패소했고 52억

원을 동생 부부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에 조 후보자 일가가 채무 변제를 면탈받기 위해 해당 소송을 의도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담회에서 “동생이 학교 재산을 노리고 소송한 것은 아니다”며 해명했다. 또한 이번 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웅동학원이 당시 소송과정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한 것에 “당시에는 무변론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

다치게도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7일을 시작으로 검찰은 조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단국대 △서울대 환경전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나 원내대표)는 “환경대학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조국이 피의자라고 확실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판사경력을 근거로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곳은 영장 발부를 아예 안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하 유 이사장)은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봉하음악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의혹 확인 과정에서 억측이 결합되고 있다”며 “현재 조 후보자를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조지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유 이사장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를 한다”며 맞대응했다.

여야간의 갈등의 끝은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담회가 열린 뒤 더욱 깊어졌다. 기자회견담회가 열린 이튿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솔직히 해명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날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담회에 반박하고자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광덕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 외고 재학 시절 생활기록부와 일부 내신 성적을 근거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갈등은 쉬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길거리에 내걸린 현수막과 대학생 집회

지난달 27일,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조 후보자를 향한 응원과 비난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빚어진 실시간 검색어 전쟁은 길거리 여론전으로 잇따라 번졌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는 이를 풍자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수역 인근을 비롯한 사당동, 상도동 등 거리 곳곳에 △ ‘시뭇 치지 않습니다’ △ ‘공부하지 않습니다’ △ ‘학비 내지 않습니다’ △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비슷한 현수막은 성남시 인근에서도 발견됐다. 한편 현재 걸린 현수막 중 다수는 구청 신고 없이 익명으로 붙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무분별하게 붙여진 현수막 수거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대학가 역시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에서 조 후보자 딸의 각종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2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위엔 500여 명(총학생회 측 추산)이 참여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교수 STOP’이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뜻을 모았다. 이어 30일,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에서도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해당 집회에서 고려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100여 명(총학생회 측 추산)의 학생들은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알립니다. 해당 기사는 9월 7일 날짜에 작성됐습니다. 이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상황이 담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임명식이 오후 2시에 열렸으며,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우리학교 길고양이 봉사 동아리 ‘냥거주입’을 소개합니다.

‘냥거주입’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내 길고양이를 돌보는 봉사동아리다.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간과 재능을 투자해 다양한 방면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동아리장 전에 지슬(국제·아프리카 18)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성화수술을 위해 포획한 고양이

Q1. ‘냥거주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냥거주입’은 글캠 내의 길고양이 봉사동아리입니다. 2017년 1학기에 기숙사에 길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시작했어요. 냥거주입의 뜻은 ‘냥아저씨 거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 가요’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입니다. 이 동아리는 △ 기획홍보팀 △ 회계팀 △ 급식팀 △ 디자인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저희는 교내 길고양이들에게 급식·급수를 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겨울집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Q2. 냥거주입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학기 중에는 매일 사료와 간식, 물을 배급하고 있어요. 축제와 물리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가을엔 용인시와 함께 정기

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캠퍼스 내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를 조절합니다. 겨울엔 라이프 노킹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추운 겨울엔 고양이들이 온기가 남은 자동차의 엔진 룸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에 시동을 걸기 전 자동차 본넷트 노크를 장려하는 캠페인이예요. 한뼘 기부 이벤트는 학우들에게 한뼘을 팔아서 번 수익으로 다시 한뼘을 사서, 고양이들의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해주며 겨울집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활동입니다.

Q3.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희가 밥을 주는 교양관에는 ‘로묘’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람을 경계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로묘’가 이제 밥을



▲고양이를 위한 겨울집

주러 온 부원을 알아보고 애교를 부리기도 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던 ‘로묘’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온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4.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냥거주입의 부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들을 기쁘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힘든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에 산이 있는 학교의 지리적 특성상 고양이들이 자주 사라지곤 하는데, 그럴 때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정말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또 시간·재정적인 문제로 고양이들에게 좋은 사료를 주지 못하고 열심히 돌봐주지 못할 때 한계를 느끼고 그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Q5.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다들 달인 10월 말에 캠퍼스 내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예정돼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부원들이 직접 고양이를 포획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밤새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고양이들의 겨울집도 보수하고 캠페인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Q6. 냥거주입을 같이 활동하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방학에도 꾸준히 활동을 해주고 항상 ‘쥬르(고양이간식)’를 챙겨 다니며 고양이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달려오는 부원들에게 감사を 표하고 싶어요. 냥거주입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인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Q7. 길고양이와 관련해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나요?

냥거주입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고양이와 학우 분들의 공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냥거주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얼어붙은 한·일 관계, 탈출구는 어디에?

지난달 2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 징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일본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 소재인 반도체를 겨냥해 이와 관련된 물자들을 수출하는 규정을 까다롭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하 지소미아)’을 전격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두 나라의 외교 상황으로 미뤄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란 입장도 있으나, 군사적으로 기밀 정보를 입수할 출구를 닫는 것은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현재 경직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두 나라의 외교부 장관 회담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석상 우리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이하 윤 교수)와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외교 갈등에 대해 알아봤다.

윤석상

우리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 교수

Q1.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 교수 : 최근 두 나라는 지난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도모하고자 개척된 ‘김 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하던 갈등을 마무리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제주 국제관함식 육일기 계양문제△레이더 조사 및 초계기 사건△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관리 강화 및 지소미아 파기 등의 직접적 촉발 원인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문제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용 불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해 쌓여온 다양한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2. 일본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됐는데 백색 국가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

윤 교수 : 백색 국가는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의 전략물자를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받는 국가를 칭합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또는 ‘안정보장우호국’이라고도 부르죠.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품목으로 약 1,120개를 지정했는데 이중 △미사일△생화학무기△핵물질 등 263개 품목은 백색 국가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백색 국가의 경우 그 외의 품목은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개별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수출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국엔 편리하다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색 국가 제외가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란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한·일 양국은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업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도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이 생존할 수 없단 점에서 오히려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긴밀한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로 연결돼 있기에 양국 모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가치사슬 활동이 한 국가 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날 경우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부른다.

Q3.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란 무엇이며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한 것이 두 나라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최 교수 :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맺은 군사협정으로 2016년 11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된 데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후 지소미아는 기존보다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이유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내세워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 수단이었습다. 이는 일본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대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조치에 대해 순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를 막는 기대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윤 교수 :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 자체가 일본을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서는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갈등의 귀책 사유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강화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정보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현재 일본정치사회는 ‘이항대립의 정치’가 일상화됐습니다. 이항대립의 정치 방식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적’으로 돌려 자국의 보수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4. 지소미아 파기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 : 지소미아는 실질적인 북한 정보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나라△미국△일본 세 나라가 공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각국의 시각은 각자 다릅니다. 사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보다는 한·미·일 관계 내지는 한·미관계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체결됐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국이 특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해 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양자 간의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적지 않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경제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등에 대해 우

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갈등이 심화할 경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상충해 전체의 성장률을 낮추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시국에 동감해 진행하는 불매 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 교수 :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지만, 일본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이미지 악화△일본상품에 대한 판매 저하△관광 취소 등에 따른 일본 지역산업서 소득 저하 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보복 조치가 더욱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Q6. 일본 시민과 학계는 우리나라와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윤 교수 : 최근 일본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일부 시민들도 협한 조장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현 상황을 우려하는 학자들을 주축으로 반(反)아베 운동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만 여 명이 참여하며 시작된 ‘한국은 적인가?’라는 아베 정부 규탄 서명 운동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자국 내 △학계△사회지도층△시민들의 여론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사회적 반응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 : 일본의 지한파 그룹과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쉽게 동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현재 조치가 마땅하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두 나라 간 얘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차이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다민 기자 98bdamin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0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9. 9. 30(월) ~ 10. 4(금)	10.26(토) 10:00	11.7(목) 14:00	11.11(월)~11.15(금)
일반전형	2019. 11. 11(월) ~ 11. 15(금)	12.7(토) 10:00	12.19(목) 14:00	12.23(월)~12.27(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일기

남들보다 조금 빨리 글을 읽었고 글쓰기 상을 운 좋게 자주 탔었다. 그건 엄마의 자랑이었다. 여느 자식들이 그렇듯 나도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글을 썼다. 그래서 나에게 글쓰기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숙제로 주어지는 일기도 불평 없이 꾸준히 썼다. 글은 나의 감정과 경험을 기록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엔 글을 읽고 쓸 일이 줄어든 것 같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대학생이 된 지금은 일기를 거의 쓰지 않는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짧게 남기곤 한다.

요즘엔 일기의 역할을 영상이 대신하는 것 같다. 유튜브에 ‘일상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일기를 적듯 기록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상은 제작자가 시간적 흐름을 정하고 자막이나 편집을 통해 부차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댓글을 통해 같은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글보다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더 편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글쓰기 능력은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영상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 글은 이를 묘사할 수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록할 수 있는 글을 더 선호한다. 이것이 내가 외대학보에 들어온 이유다. 격주로 기사를 쓰면 꾸준히 글을 쓰지 않을까 싶어 학보에 지원했다. 첫 신문을 준비하며 그동안 나는 스스로를 위한 글만 써왔다고 느꼈다.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다. 나의 기록은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독자는 여러 명이란 사실을 간과했다. 이를 통해 읽는 사람이 편한 글을 쓰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앞으로의 학보 활동으로 나의 글쓰기 능력도 기르고 나만 좋은 글이 아닌 모두에게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겠다.

조하영 기자

사라진 코는 어디에? [고골의 ‘코’를 읽고]

러시아는 예로부터 문학적 거장이 많이 탄생한 나라로 유명하다. 톨스토이,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등 러시아의 뛰어난 작가들은 당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소설을 집필해 세기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저서들을 남겼다. 이들이 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교훈과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에게 러시아 문학은 심오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 중에도 재치있고 해학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명작이 여럿 있다. 특히 언어 표현의 대가라고 불리는 고골은 이와 같은 ‘코믹’ 단편의 대가이다.

‘코’, 단편 소설의 제목이다. 제목부터 독특한 인상을 보여준다.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거라곤 생각되지 않는 제목이다. 이 책은 주인공인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가 아침을 먹기 위해 빵을 가른 순간, 하얀 코가 발견되며 시작된다. 상상만 해도 곤란하다. 아침식사를 하려고 빵을 잘랐는데, 사람의 코가 등장하니, 당황한 야코블레비치는 서둘러 코를 처치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다. 그는 부끄럽고 불편한 코를 여기저기 버리려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그리고 한참동안 고군분투하다 마침내 코를 강에 빠뜨리는 데 성공한다. 여기서 야코블레비치의 당황스러운 경험은 일단락 되고 이야기는 코의 주인의 에피소드로 옮겨진다.

또 다른 주인공인 꼬발료프는 평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어제 코에 났던 여드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울을 본 꼬발료프는 당황하고 만다. 코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8등관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와 존

수한 외모로 많은 여자와 교류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스스로 더 높은 관등에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때문에 코가 사라진 상황은 그에게 매우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코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온 순간,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된다. 바로 코가 정장을 입고 멀쩡히 사람처럼 생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코에게 다가가 스스로를 소개하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보지만, 높은 관등의 제복을 입은 코에 기가 죽고 만다. 그렇게 꼬발료프는 하루하루 걱정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꼬발료프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돌아온 코를 발견한다.

고골은 꼬발료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말하고 있다. 참 우습지 않은가, 코를 찾는 이유가 숨을 쉬기 위해서도 아니고 존수한 외모 유지와 승진 때문이라니, 제 몸에 붙어있던 코가 갑자기 높은 관등의 제복을 입었다고 다가가기 망설이는 꼬발료프의 모습은 내면보다 겉모습에 집착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어쩌면 우리는 내용보다 포장에 더 집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소재가 단순하다고 의미도 단순하진 않았다. 리드미컬하게 읽히는 문장이지만 그 속의 담긴 의미를 생각하다보면 왜 고골이 훌륭한 문학적 거장으로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새기며 [아이 캔 스피크]

명진구 재래시장에서 옷 수선가게를 하는 ‘나옥분’ 할머니는 매일 동네를 휘저으며 구청에 8천건에 달하는 민원을 넣어 도깨비 할매라고 불린다. 평상시처럼 민원을 넣으며 간 옥분 할머니의 앞에 어느 날 원직주의 9급 공무원인 ‘박민재’가 나타난다. 옥분 할머니는 엄청난 양의 민원을 민재에게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민재는 이에 원직주의로 맞섰고 둘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 한편 옥분 할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다. 하지만 쉽게 늘지 않는 영어실력에 좌절하던 중, 민재가 원어민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후 옥분 할머니는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며 쫓아다니지만, 민재는 거절한다. 그러던 중 옥분 할머니가 자신의 동생을 돌봐주는 모습을 본 민재는 옥분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옥분 할머니의 영어선생님이 된다.

영어를 배우던 중 옥분 할머니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사실, 위안부 피해자였던 옥분 할머니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한다. 몇 달 뒤 옥분 할머니는 그동안 배운 영어를 바탕으로 미(美) 의회 증언대에 오르지만 긴장한 탓에 영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자 미(美) 의회 사람들은 증언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려 한다. 그때 옥분 할머니의 증언을 듣기 위

해 민재가 청문회장에 나타나고, 민재를 보고 안심한 옥분 할머니는 무사히 증언을 마무리한다. 청문회가 끝난 후 옥분 할머니는 민재의 노력 덕에 남동생과 재회한다.

이 영화는 위안부 이야기를 다뤘던 기존 영화들과는 사뭇 다르다. 기존 영화가 위안부 피해 당시 모습을 그렸다면, 이 영화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나옥분 할머니가 용기를 내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또한 평소에는 할머니를 귀찮게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가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하고 할머니를 응원해주는 모습은 나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

지난달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날이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제 남아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20명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분들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보는건 어떨까.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2019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19년 2학기 **외대학보 1034~1039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2회)
-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 **모집기간** 9월 19일(목)까지
-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 **문의** 서울캠퍼스 김민준 기자 010-2900-9358/ 글로벌캠퍼스 조하영 기자 010-5440-2398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평행선에 서서

이번 달 6일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를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해 답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치계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행동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일 관계를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위에 서있다. 지난달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후, 우리나라 또한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격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한 번 멀어져버린 두 나라의 관계는 가까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13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대위가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취소와 파면△학생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정보공개요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개인정보법△사립학교법△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근거로, 비대위의 요구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번 1034호에 다뤄진 많은 기사의 주제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 평행선은 비단 큰 단체나 소속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연인들도 결국은 좁혀지지 않는 가장 가까운 평행선에 서서 이별하곤 한다. 죽도록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도 평행선이 있는데,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타자들은 결국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어떠한 이유로 한 번 만들어져버린 평행선을 다시 잇는 데에는 아주 많은 힘이 든다. 어쩌면 포기하는 게 더 쉽고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나의 인지 작용 속으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물이 된다고 말했다. 라캉 또한 타자를 '나의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낯섦'이라 정의 내렸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다.

물론 한 치의 양보도 불가한 평행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모든 관계의 선이 다 둥근 곡선일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평행선으로만 이뤄진 그림은 아름답지 않다. 이처럼 평행선을 유지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회도 아름다울 수 없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방향을 한쪽으로 1도만 튼다면, 언젠가 꼭 다른 평행선 혹은 타인과 만나게 돼 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서로를 향해 조금만 틀어보는 것은 어떠한가. 수많은 교점이 만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것이다. 오늘 나또한 내 앞에 그려진 수많은 평행선에 서서 우리 사회의 많은 평행선들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김지수 편집장 97didu@hufs.ac.kr

한 학기를 시작하며

97기 김지수: 기자분들 묵묵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잘해봅시다.

97기 안효빈: 언제나처럼 즐겁게 다시 한 학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함께 마무리 해 봐요! 항상 고마워요 :)

98기 김나현: 여러분과 한 학기를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외대학보 화이팅 :) 열심히 해봐요!

98기 이다민: 한 학기동안 마음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해봐요 :) 외대학보 화이팅~

98기 한태현: 모두 고생이 많아요... 언제나 외대학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99기 김민준: 다른 기자분들한테 피해입히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학기동안 열심히 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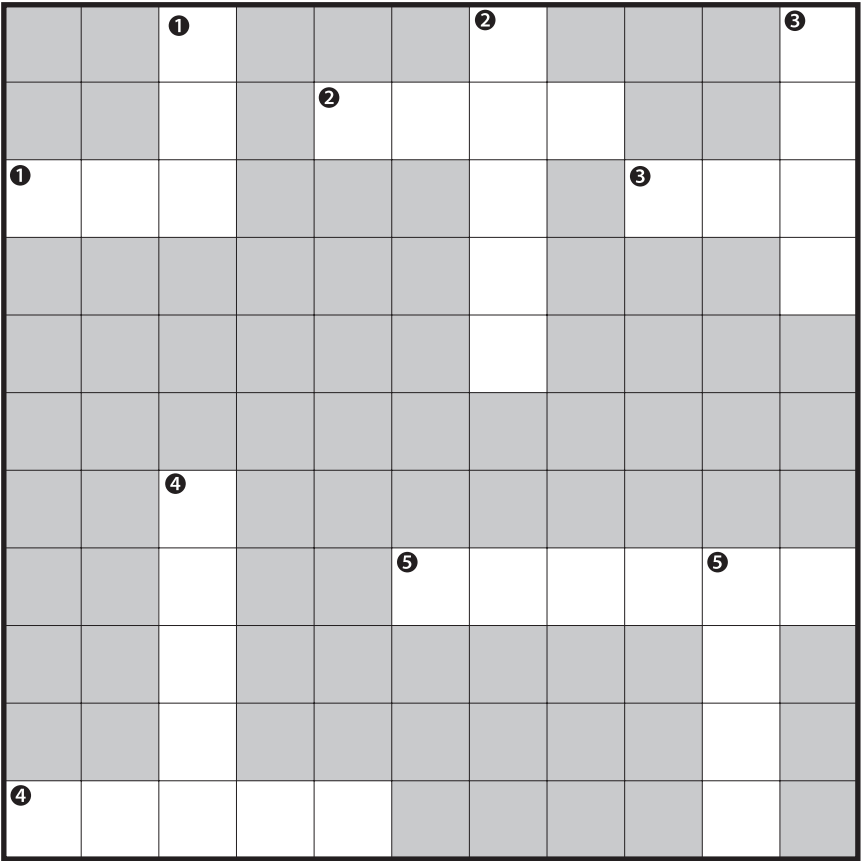
99기 조미경: 책임감을 갖고 외대학보에 꼭 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학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99기 조하영: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학보 생활을 해서 뿌듯합니다. 학보에 누가 되지 않게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요 (^-^)

99기 최민선: 학보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학기동안 열심히 즐겁게 하겠습니다~

99기 허지나: 열심히 배우며 한 학기 큰 실수없이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외대학보 같이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십자말풀이



- 가로**
- 1. 지난달 1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건물 앞에서 국제지역대학원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철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4면 참조)
 - 2. 지난달 2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9면 참조)
 - 3. 이번 달 9일 트로이카 ○○○출정식이 서울시립대학교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3면 참조)
 - 4.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은 동대문구와 MOU를 체결하고 인도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3면 참조)를 진행했다.
 - 5. 지난달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제43차 우리학교 ○○○○○가 개최됐다(2면 참조)
- 세로**
- 1. 이번 달 6일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8면 참조)
 - 2. 국내유일의 전통문화 테마파크인 ○○○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7면 참조)
 - 3. 우리학교는 ○○○직후인 1954년 4월 20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창립됐다(6면 참조)
 - 4. 플라멩고는 스페인 남부 ○○○○지방의 전통적인 민속예술이다(6면 참조)
 - 5.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학교와 우리학교 총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 HUFs X HUFs 동문 멘토링 캠프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됐다(2면 참조)
-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선인입니다**
- 파출에 정당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거짓 주장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난 토요일, 한국 사회를 들끓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여러 논란 속에서 조국 후보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크게는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 TV와 신문 등의 매체에서, 작게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열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한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 가족과 친구, 애인 등이 SNS를 통해 올린 온갖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골목길과 도심의 큰 길, 고속도로 그리고 버스과 상점 및 영화관,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각종 CCTV에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시대보다 서로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글과 사진 및 동영상에 언제가 어떻게 어느 누구에게 접근되어 악용될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공포가 되기도 한다. 연예인과 정치인 같은 유명인의 경우는 이것이 자신의 인기와 권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찌르고 공격하며 내리막길로 안내하는 첩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명인의 스캔들이 한 번 SNS 상에 올라오면 삽시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한다. 그것이 비록 나중에 거짓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순간을 지울 수는 없다. SNS의 위력은 우리나라에서 촛불혁명으로 나타나 민주주의를 성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SNS는 역으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우리가 똑같은 뉴스와 똑같은 드라마나 동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반응하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자. 모든 것에 똑같이 반응하면서 사는 집단에서 집단은 똑똑한 지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어리석은 대중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스 독일은 유대인 600만명을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학살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SNS 상에는 이것이 통째로 날조된 일이란 주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다. 일본제국의 식민시절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하며 발뺌하는 일본 정치인이 있고, 그것을 믿고 지지하는 이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부분적으로는 진실이고 부분적으로는 거짓들이기도 하다.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안 될 것이지만, 진실을 거짓이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겠는가? 검찰에서 조사할 일은 조사하겠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잊힐 것이다.

존스튜어트 밀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거짓이 인권침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거짓이나 틀린 주장도 나름의 사회적 효용이 있는 동시에 국론분열이라든가 개인의 인권과 존엄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엄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가을에 다시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은연중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SNS 상에 올라온 거짓 혹은 과장 내용에 대해, 그것을 올린 이들의 의도에 따라 같이 동조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당사자가 억울한 것이고 우리가 사실로 믿은 것이 왜곡된 것이거나, 과장된 것이거나, 아예 거짓이라면, 그 동조는 다시 후회와 자책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SNS 상의 정보는 반드시 사실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결국 그 짧은 글에 그들의 취향과 주관 등이 개입된다.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은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취하는 이들도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보고 싶은 의견들과 주장에만 눈과 귀를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집단바보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더욱 요구되고, 우리는 지혜를 넓히고 깊이기 위해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지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평등한 교육의 문을 여는 황인수 EBS 미디어 대표를 만나다

EBS 미디어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자회사로 △학교교육 보완△국민 평생교육△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황인수 대표는 30년간 EBS에서 방송 프로듀서로 활약하다 최근 EBS 미디어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다큐프라임 생사 탐구 대기화 <죽음>', '질문 있는 퀴즈쇼-빅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현재는 EBS 지적 자산을 이용해 콘텐츠 확대 재생산에 기여하는 EBS 미디어 황인수 대표를 만나봤다.

(사회 · 신문방송 80)

Q1.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학교를 졸업한 것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평소 광고와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볼 기회가 많았고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가 훗날 프로듀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진학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창의적△국제적이기 때문에 프로듀서로서 창의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Q2. 대표이사가 되시기 전에 방송 프로듀서로 일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당시 KBS는 '티비 유치원' 이란 프로그램을 방영 중이었고, EBS에도 비슷한 이름의 '텔레비전 유치원' 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름을 헛갈리자 당시 피디님과 함께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고, 지금의 '딩동댕 유치원' 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번개맨도 사실 '딩동댕 유치원' 에서 파생됐죠. '딩동댕 유치원' 에서 '모여라 댕댕' 이 만들어졌고, 번개맨은 '모여라 댕댕' 의 한 코너예요. 직접 번개맨을 개발하진 않았지만 모체가 되는 '딩동댕 유치원' 을 만들고 여기서 파생된 캐릭터가 아직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 있는 특강 쇼-빅뱅' 이 인상 깊었어요.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는 '4C 능력' 을 갖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4C란 △소통(Communication)△협력(Collaboration)△창의력(Creativity)△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소양이 질문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우리나라 기자에게 먼저 질문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 중국 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질문 없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아쉬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있는 특강쇼-빅뱅' 을 기획했고 그 결과 PD 연합회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현업인들이 주는 상이라 더욱 뿌듯했습니다.

Q3. 대표이사로 계신 EBS 미디어는 어떤 기관이고 EBS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BS 미디어의 모기업인 EBS는 경영 철학을 '교육' 에 두

고 있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교교육을 돕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면서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BS는 공익교육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EBS 미디어는 EBS가 만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을 해요. EBS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에 매각하는 것이죠. 또한 EBS가 소유한 캐릭터나 프로그램을 상품화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EBS 캐릭터를 활용해 공간·전시사업을 벌이는 것과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어 출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즉, EBS 미디어의 주 업무는 EBS가 만든 콘텐츠와 지적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Q4. 앞으로의 목표 및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EBS 미디어 대표이사로서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미디어 현상을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서 실사구시*한 경영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으로선 EBS가 만든 캐릭터나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해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5. 어떤 신념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나요?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공후사'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개인적인 것을 나중에 생각하라는 뜻의 사자성어지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나 회사를 운영할 때, 공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사정은 미루려고 노력했어요. 작업 중엔 사사로운 것보다 제작 중인 프로그램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유용하면서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정진했습니다. EBS 미디어에 입사하고도 지적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Q6. 방송 프로듀서를 꿈꾸거나 EBS 미디어에 입사하고 싶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채용·인사 비리를 없애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런 추세에서 가장 투명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엔 주관이 담기지만 학점은 객관적인 지표예요. 학교 수준과 상관없이 학점이 낮으면 1차 합격도 어렵습니다. 학점관리를 잘해서 1차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학점관리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따라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조미경 기자 99migyoung@hufs.ac.kr




꿈 여행을 위한 시작(Begin), 행동(Action), 변화(Transformation)

1. 지원내역 꿈 활동 지원금 지급
2. 응모자격 전국 아르바이트생 누구나 * 2000년생 이상 성인만 가능
3. 응모방법 참가신청서 및 사진 이메일접수
4. 접수기간 2019.7.31(수) ~ 9.20(금)
5. 문의처 H www.idealnumso.com/bat T 02-407-9006 E bat@goodcontest.co.kr

주최 BAT코리아 | 주관 생각나눔소